

2020년 7월 3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박선우(044-201-1791), 서기관 강승규(1794) / 제공일: 7월 30일(총 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장관, 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 주재

= 배수장·배수로 정비, 농작물 생육·수급점검, 가축 매몰지 관리 등 철저 당부 =

□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.30(목), 08:30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장마철 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.

* 기상청 전망 : 7.27.~31.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, 8.1.~8.2. 서울, 경기, 충청, 강원지역에 비가 내리고 서울과 강원영서는 8.3일까지 지속될 전망

□ 이 자리에서 김장관은 6월부터 계속된 장마로 인한 농작물 침수, 일조량 부족 등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품목별 생육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- 지역에 따라 8월초까지 호우가 지속될 전망임을 감안, 농작물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배수장 가동상태 점검 및 배수로 정비 철저
- 지역별로 비가 잦아들면 병해충 방제, 영양제 시비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벼, 과수 등 품목별 생육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
- 경기북부지역 호우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관련 방역 조치 철저, 축산단체 등과 합동으로 가축매몰지 관리 및 축산분뇨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점검 추진
- 산사태 예방 활동 철저와 농촌지역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

□ 또한, 농식품부 실국장급 간부들은 피해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토록 지시하였다.